

노원 청소년 평화통일기자단

노원 청소년 평화통일기자단

기자 | 강태웅 김나윤 남동혁 이채령

이현빈 차예린 차예찬 한영민

교사 | 이하나 변수진

발행일 | 2022년 11월 6일 발행처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22 노원구 지역밀착형 평화통일 교육사업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남동혁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

한영민



서대문형무소를 다녀와서

이현빈 · 김나윤 · 강태웅 · 차예찬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다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활동소감 | 이채령 · 차예린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남동혁 (노원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태랑중 1학년)

저는 통일의 장점과 단점, 통일이 언제 되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통일의 장점입니다.

통일의 장점은 첫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천연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져 무역 단점을 보완 할수있습니다.

두번째로 통일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유리해져 유라시아를 철도로 이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하게되면 인구가 증가해 국내 총 생산량(GDP)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G5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이 경제력이 높아집니다.

통일의 단점입니다.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금을 많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과 남한이 합쳐집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곳을 개발 해야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되면서 그곳 경제가 발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돈을 많이 투자해야지 발전 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통일이 언제가 가장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극적이게도 현재는 통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통일 방법은 자연스러운 남과 북의 교류를 통해 통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주변국의 방해 입니다. 만약 우리가 통일 했을 때 중국은 통일된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않을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교류를 줄일것이라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는 자신의 안보를 위해(미국한테 압박 받을 까봐) 쳐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끊지 말아야 하니까 이 전쟁에 대응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3차대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중국, 러시아 보다 경제력, 군사력이 높아야 통일을 할수있을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통일의 장점과 통일이 언제 되는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통일에 대해 깊이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와 가깝지만, 가장 먼 나라 처럼 느껴지는게 안타깝습니다.

일본이 사과해야 하는 이유

한영민 (노원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공릉중 1학년)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에 경찰대신 군인을 주둔시켜 민족의 기를 죽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많은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그 시절에는 울던 아이가 헌병 온다, 순사 온다 소리만 들으면 울음을 뚝 그친다는 소리가 있었다는 걸 보면 그 당시 일본 헌병들은 정말 무자비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본 헌병들은 ‘즉결심판권’을 통해 재판이나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그 자리에서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처벌하였고, ‘조선 태형령’이라는 법을 이용해 일본인은 죄를 저질러도 태형대에서 맞지 않고 조선인만 죄를 지었을 때 태형대에서 맞게 하면서 일본인은 조선인과 똑같은 잘못을 해도 맞지 않는다 즉,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조선인들에게 무이식 중에 각인 시킬려고 했다.

이때 일본 헌병들은 태형대에서 맞는 조선인들을 향해 ‘조선정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라는 민족비하 발언을 일삼으며 조선인들을 세뇌시켰고 이것이 일본제국의 전쟁 잔제로 남아 ‘한국인은 맞아야 말을 들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또 1910년대, 학교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에서 선생님들이 칼을 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독립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선생님이 일부러 칼을 차고 다니며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기라도 하면 칼을 뽑았다가 세계 칼집에 넣으면서 철 마찰음을 내 아이들을 공포감 속으로 몰아 넣었다.

또 학교에서는 황국신민서를 외우게 하면서 조선은 일본 황제의 신하 나라이고 조선인들은 황제의 신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국신민서에는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황제의 신하된 백성으로서 괴로움과 아픔을 견디고 몸과 마음을 굳게 먹고 황제의 앞날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황국신민서는 아동용과 일반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일본이 조선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두 일본인을 위해 일하게 만들려는 악한 속내를 잘 알려주는 글이다.

1910년도에는 일본은 조선을 무력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했지만 1920년도에 이르러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라는 것으로 바꾸게 된다.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꾼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그건 바로 1919년3월1일 일어난 3.1운동 때문이다.

일본은 문화 통치를 시작하면서 헌병대신 경찰이 근무하도록 했고, 언론보도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총독은 무조건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뽑힐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일본은 헌병 대신 경찰을 투입하는 대신에

“

일본은 전쟁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몇백조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하고
일본 총리가 연설을 통해
자신들은 그런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교육시키고
과거에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나라의 선조분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경찰 인원을 몇 배가량 증가시키고 언론에서 일본을 좋지 않게 대하는 기사는 무분별한 검열을 통해 삭제 당하였다. 또 민간인이 총독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일제감정기 동안 총독이 된 민간인은 0명으로 일본이 그저 조선을 더 쉽게 다루기 위해 ‘일본은 조선을 존중한다’는 이미지의 통치로 바꾸었으나 일본인이 조선인에게 대하는 방식은 더 악해졌다는 것 밖에 달라진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을 뺏고, 주권을 뺏고,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고, 창씨개명을 하게 하고, 단발령을 실시하고, 조선의 왕을 폐위시키고, 왕비를 죽이고, 일본 세뇌 교육을 통해 친일파를 육성시켰다. 또 전쟁 자원 확보를 위해 조선 백성들을 식락을 마구잡이로 수탈해 갔고, 일본 전쟁에 징집되거나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해저 탄광에 강제적으로 아니면 일본에 속아서 끌려가 강제 노동을 당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은 조선에서 수많은 전쟁 범죄들을 저질렀다. 일본은 대륙진출을 꿈꾸며 여러나라를 점령하다가 미국을 건들게 되고 결국 미국의 핵폭탄 선물을 받고 그 비열하고 끔찍했던 일본제국주의도 막을 내리게 된다.

일본은 미국의 핵폭탄 투하 이후, 조선을 떠났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저질렀던 만행을 정확하게 일본 대중들이나 세계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나라는 피폭국가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계속해서 일제의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또 전쟁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몇백조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하고 일본 총리가 연설을 통해 자신들은 그런 일은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달리 2차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고 독일 총리가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가 독일인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서 죄송하다는 연설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독일은 베를린 전쟁 피해자들에게 독일 기업과 독일 정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 독일이 당시 전쟁을 했던 곳에서 저지른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박물관이나 복원 작업을 추진하고 나치가 얼마나 나빴으며 나치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독일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교육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시는 세계2차대전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깨우쳐준다.

일본은 이런 독일의 사과모습을 본받아 일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교육시키고 과거에 고통을 당하셨던 우리나라의 선조분들께 사과해야 할 것이다.

서대문형무소에 다녀와서



이현빈 (노원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영광중 1학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한 서대문형무소는 일제강점기 때 지은 감옥입니다.

서대문형무소에는 죄를 지은 사람 말고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어 심한 고문과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가 아는 유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일본은 서대문형무소를 서대문 직업학교라고 홍보하며 매주 목욕과 매일 운동, 생계를 위한 직업훈련하는 곳이고 그곳은 따뜻하고 안락한 방이라며 신문 등에 거짓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겨울에 옥사에 물을 부어 훨씬 더 춥게 하기도 하고 갖은 악랄한 짓과 고문과 사형을 했던 곳이며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돌아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역사왜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은 욱일기를 단 함정을 몰고 와서

독도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또다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치를 흔들고 평화를 깨고 나라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일본의 만행은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 공부하면서 몰랐던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을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2의 서대문형무소가 또 생기지 않게 많은 분들이 역사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소개합니다

차예찬 (노원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중평중 2학년)

서대문 형무소는 1908년 10월에 문을 열어 1987년 11월에 패션 일본 제국주의가 지은 근대식 감옥 이고. 주 사용 용도는 일제 통감부가 식민통치를 저항하는 운동가들을 투옥 하기 위해 만든 감옥입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는 최초에 약 500 명을 투옥 할수 있는 560여 평 규모의 목조건물이었으며, 경성 감옥에서 서대문 감옥, 서대문 형무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잘 알려진 수감자로는 백범 김구 선생, 강우규 열사, 유관순 열사가 있다. 1945년 광복 후 서대문형무소의 명칭은 서울 형무소로 바뀌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느낀 점

생각보다 보존이 잘 돼 있어서 놀랐고 우리나라의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아서 되게 신기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꼭 가봐야하는 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전시관, 격벽장, 추모 공간과 사형장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김나윤 (노원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태랑중 1학년)

저번주에 통일기자단에서 서대문형무소에 다녀왔다.

되게 오랜만에 가는거라 설레기도 하고 가서 재미있는걸 배운다고하니 몇일전부터 얼른 가고싶었다.

서대문형무소에 가서는 건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건물은 뭐를할때 쓰는 건물이고 일본이 여기서 독립운동가에게 어떤 고문을 했는지 알려주었다.

특히 지하고문실이 기억나는데 지하고문실에는 물고문, 독방고문등 끔찍한 고문도구가 많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건 손톱에 바늘을 넣어서 고문하는것이다.

일본이 고문을 하고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고문을 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고문을 한다는것도 끔찍했다.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를 죽였지만 지금부터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번째 방문한 서대문형무소

강태웅 (노원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광운중 3학년)

여태까지 내가 서대문형무소에 몇번이나 와 봤는지 되짚어 보니 이번이 총 네번째였다. 첫번째는 아주 어린 아이였던 시절에 가족과 함께, 두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때 학교에서 체험학습으로 갔었다. 그리고 세번째는 얼마전에 갔다 온 이유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있었던 노원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활동으로 갔었다. 그리고 네번째가 바로 이번에 갔다온 것이다. 네번째로 가봤던 곳이지만 매번 느낌은 천차만별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첫번째로 갔을때는 너무 어릴때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형무소의 음침하고 스산한 기운에 조금은 무서운 감정을 느꼈던 것 같다.

두번째로 갔을때는 비교적 다양한 감정을 느낄때라 그런지 그나마 기억이 있다. 두번째로 갔을때는 학교 아이들, 선생님들과 같이 갔기 때문에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무겁고 진지하거나 사형장 스토리같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때면 나를 비롯한 초등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근히 엄숙한 분위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두번째 갔을때부터 조금이나마 서대문형무소에 관한 지식이 생겨났다.

그리고 세번째로 작년에 갔었던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초등학생에 비해 나름 성장한 중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메모까지 해가며 열심히 해설자분의 해설을 들었다. 게다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고 온 것이라는 마음가짐과 해설자분의 유창한 해설 덕에 해설 하나하나가 귀에 박힐 정도로 인상 깊었다.

마지막으로 얼마전 기자단 활동으로 네번째로 가봤던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다른 해설자분이 오셨고, 같은 코스였지만 색다른 느낌의 해설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한 기행이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게다가 바로 작년에 와서 공부했던 것들을 1년만에 다시 복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까먹었던 내용들은 똑똑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고, 작년에 인상깊게 봐서 그런지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내용들은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점도 있었는데, 독립관의 옆쪽에 위치한 유관순 열사의 동상은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에 새로 세운 동상이라고 했다. 독립관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고, 국화꽃을 놓을때와 묵념을 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기릴때에는 가슴이 찡하기도 했다. 손톱고문처럼 일본군의 간악하고 잔인무도한 모습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마음 한켠에서 화가 치밀어오르기도 했다. 또,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때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이번 기행에서, 아프지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어나지 않아야만 하고 바로 잡아야만 하는 이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바로잡아야 함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또, 강제징용과 위안부를 비롯한 일본의 수많은 전쟁범죄들을 반드시 사죄받는게 한반도의 평화와 완전한 자주적인 독립에 빠질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루빨리 남과 북의 평화통일과 조국의 자주독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다

이채령 (노원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서울문화고 3학년)

‘누구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나, 일본놈들이 무엇인데.’

기자단 역사교육 시간에 시청한 강제동원 피해자 신천수 할아버지와 김정주 할머니의 영상을 다시 한 번 찾아보면서 영상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전율을 느꼈다. 일생에 하나뿐인 청춘을 타지에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리신 할머니께서 되려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는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마저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3년 만에 맞은 승리의 순간 생존한 원고는 이춘식 할아버지 1명 뿐이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으면 엄청 기쁠 것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물론 과정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겠지만 승소까지 13년이나 걸린 데에는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거나 알고도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것이 한몫했다고 생각했다. 오랜 시간 기약 없이 싸워오신 분들을 보니 그분들이 굳건히 싸워오시는 동안 나는 무얼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는 돈이 들거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닌 작은 관심 그 자체로도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평화통일 기자단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발버둥 쳐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도, 분단이라는 아픔이 아직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잠깐 심각하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곧 식어버린다는 것, 생각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름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럼에도 변화는 정말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또한 겪어왔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활기찬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어른들보다도 학생들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에 발 벗고 나섰을 때의 결과가 궁금하고 기대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조차도 고3으로 기자단에 들어 미처 못 한 활동에 대해 아쉬움이 컸지만 1기에 이어 2기 활동도 함께 할 수 있어 기뻐다. 기자단 활동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고, 사소하지만 스스로 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

내 작은 외침이 사람들의 구호가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목표뿐만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 분명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나라가 겪어온 일을 생각하며

차예린 (노원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 중평초 6학년)

저는 우연히 어머니 소개를 통해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자단이라 하기에, 글만 쓰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수업 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주 일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세계에 평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가 지금까지 오기 전에 겪어왔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듣는 수업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직접 체험을 간 ‘서대문 형무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현장으로 직접 가보니 영상 속으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전문 해설사 선생님에게 해설을 들으니 더욱더 몰입이 되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말고도 많고 많은 다른 경험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었고, 하는데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8·21

청소년기자단 활동시작

오리엔테이션



8·28

역사교육 · 글쓰기교육

일본은 왜 사과하지 않을까?



9·4

역사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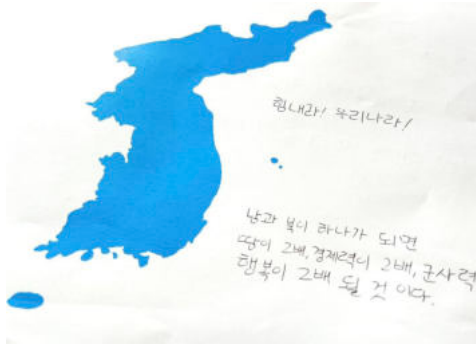
서대문형무소 기행



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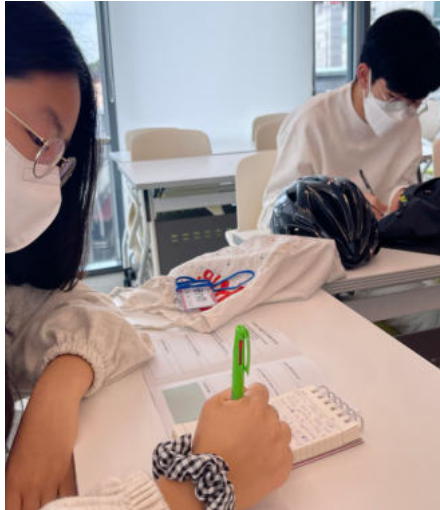
평화통일교육

남북스포츠교류, 한반도기와 독도



9·25

인터뷰 : 역사 통일 전문가



10·16

기사 읽고 서로 칭찬하기 신문 기획회의

11·6

수료식

선생님도 한마디,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소년에게 배웁니다

이하나 노원겨레하나

청소년들과 역사, 평화, 통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통일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며 국제관계의 복잡성까지 이해하는 청소년을 보며 대견한 마음 한켠에, 더 밝은 세상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역사를 꼭 배워서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청소년의 다짐을 들으며, 어른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만들어 준 기자단 청소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더 어른답게, 더 많은 평화와 통일을 배우고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다집니다.

우리도, 평화

변수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평화’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일상과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와, 타인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겠지요 갈등, 싸움, 혐오, 차별, 전쟁으로 번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을 알아보고, 교육과 체험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세대라고 말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청소년 평화·통일 기자단> 활동은 단순한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 표현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감정, 걱정과 우려, 기대와 희망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청소년은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직접 보고, 듣고, 말하며 몸으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일곱 번의 만남을 이어온 청소년 기자단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우리도, 평화’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